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18: 요한: 인물 묘사

- 나다니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저자 : Ted Hildebrandt 박사

가. 리뷰 [00:00-1:45]

A: AB 결합; 00:00-8:17; 나다니엘(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 대한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요한이라는 인물과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점, 그리고 그가 매우 유대인적이고 팔레스타인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해 매우 세부적으로 지향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주요 주제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삶과 이름을 믿음으로써"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했고, 또한 믿음을 자극하기 위해 예수가 행하신 일부 표적 기적을 다루었습니다. 표적 기적 중 하나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 잔치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경적 근거와 현대적 실제적 근거에서 그것을 다루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를 신으로, 요한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신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신이셨다”는 것 중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 *로고스* [말씀]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회에 의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초기 문서, 아주 초기 문서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나. 요한복음의 등장인물: 나다니엘(요한복음 1장) [1:45-8:17]**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존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합니다. 지금 고든에 있는 스티브 헌트 박사는 책을 쓰고 있으며, 그 책에서 존의 모든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존은 이 다양한 캐릭터의 미묘한 요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민감한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 중 일부를 살펴보고 이 캐릭터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믿음의 입장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물 묘사와 관련하여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인물은 나다니엘입니다. 그들은 그를 회의론자 나다니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일어난 일은 빌립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5절과 그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읽어보면 1장 45절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이르되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이를 만났노라.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빌립이 ‘와서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처음 본 반응은 ‘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이  
 사람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알아채시고 그의 세계에 뛰어들어 그를 아첨하셨습니다. 그는  
 나쁜 의미로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이 사람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통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결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다니엘에게는 “이 사람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은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계실 때 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다니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고 그가 생각하고 있거나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예수는 바로 그것으로 갑니다: “빌립이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르기 전에 너를 보았다.” 그런 다음 갑자기 회의론자 나다니엘이 나타나 예수를 나사렛 출신으로 분류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예수를 고정관념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저는 나사렛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분류하고, 이제 예수는 회의론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너는 간사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전환을 보십니까? 예수께서 회의론자들의 세계에 개입하셔서, 기본적으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와, 당신은 나를 알고 있군요. 당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 놀랍군요.”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는 뒤집어서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믿는다.” 요한의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당신을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당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작은 힌트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물론 예수이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어디서 보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구약에서 살펴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바위에 머리를 누고 꿈을 꾸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것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지구라트 계단이고 꼭대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세계에 뛰어들어 그의 성격을 알아봅니다. 나다니엘은 그것에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그런 다음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나다니엘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회의론자가 마침내 확신했을 때, 회의론자는 두 발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두 발로 뛰어올라서 예수께서 이  
 회의론자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론의 이점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회의론에는 특정한 이점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종종 사물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공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회의론자라면 무언가에 정말로 자신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론자라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론자 의  
 입장은 항상 최첨단이고 회의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안전한  
 입장입니다. 회의론자는 말하자면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의론자일 때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위대한 비평가로서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나서, 분리하고, 그러므로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전혀 목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들, 하지만 회의론자가 뒤집히면,  
 갑자기 분리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는 참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완전히 뒤집히고, 그래서 이것은 나다니엘에 대한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가 그에게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믿음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 ㄷ. 니고데모: 종교적 탐구자 (요한복음 3장) [8:17-21:08]

B: C를 합치다; 8:17-21:08; 니고데모(요 3장)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아마 훨씬 더 유명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배트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연구, 전체 분야, 종교 심리학입니다. 이 배트슨이라는 사람은 프린스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 종교 심리학에서는 외재적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재적 종교인들입니다. 외재적 종교인은 종교에서 외적인 것들을 통해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콘에서 의미를 찾고, 아이콘을 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나 기도와 같은 외적인 것들을 찾을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가는 것과 같은 외적인 것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는 것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외적인 것들을 하고, 그 외적인 것들에서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재적 종교인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참여하는 외부의 것들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본질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재적이고 내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사적인 종교에서 오는 의미 측면에서 내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재적이고 내재적이며 전통적으로 종교의 심리가 분류되는 방식입니다. 배트슨은 탐구 지향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범주를 생각해냈습니다. 외재적, 내재적, 그리고 배트슨은 탐구자를 추가합니다. 탐구자 는 진화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종교는 외재적이거나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사람이 탐구하고, 사람들이 여정을 하고 있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탐구자입니다. 그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확신하지 못하며,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통치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 통치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지위가 있는 사람, 유대 통치 위원회였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빛과 어둠을 사용할 때, 요한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빛과 어둠 사이에 큰 차이를 둡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때, 그것은 특히 요한에게 흥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꽤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의 결론은 “그는 귀신의 왕자 베엘제붓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마귀의 사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랍비,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던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예수께 매우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매우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으며, 아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매우 갑작스럽게 돌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 노니 거듭난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것은 그의 탐구적 지향성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매우 문자적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만요, 저는 늙은이입니다. 어머니의 태 속으로 기어들어갈까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 질문을 던지며 대답합니다. 예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으로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불고 소리는 들으나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영으로 난 모든 사람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희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프네우마*”라는 단어는 영과 바람을 뜻하는 단어가 같을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또한 숨을 의미할 수 있고 바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구약성경의 “루아흐”는 정확히 유사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직접 다가와서, ”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너희는 여전히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세상적인 것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도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니까? 나다니엘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야곱의 사다리로 데려가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이며, 그를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와 함께, 그는 뱀이 장대에 들어올려진 민수기 21장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들은 뱀을 보았고, 뱀들이 물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뱀을 보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구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다니엘과 니고데모의 두 경우 모두, 그는 그들을 구약성경으로 데려가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이미지를 그들의 현재 상황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정죄니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비유를 이해하시나요? 니고데모는 밤에 왔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니 이는 자기 행위가 악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로 사는 자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행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으로 온다

.” 이런 종류의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밤에 온다고 하셨고, 저는 여기에 니고데모에게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와서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임을 분명히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습니까? 이 위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3:16의 진술입니다. 니고데모는 믿었습니까? 그는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3장 22절, 그 구절은 주제를 바꿉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시골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고데모는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니고데모에게서 나다니엘처럼 어떤 종류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그와 비슷한 말을 하며 매우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끝내시고 문단 구분이 있고 예수께서 요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거나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탈락합니다. 정말 흥미로운데,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고, 질문자에게는 반응이 어디에 있습니까?

3장과 4장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두 가지를 텍스트적으로 연관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텍스트가 3장과 4장 사이에서 어떻게 앞뒤로 움직이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중 일부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탐구자라는 것이 이것의 일부인지 궁금합니다. 그는 탐구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제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믿음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탐구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는 질문을 하고, 그는 이것을 처리해야 하며, 두 발로 뛰어들이 않을 것입니다. 회의론자, 회의론자, 회의론자, 회의론자, 예수께서 그의 세계에 침입한 다음, 그는 완전히 뛰어듭니다. 그는 두 발을 안에 넣거나 두 발을 밖에 둡니다. 탐구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퀘스터는 음식을 가지고 놓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리는 결정은 없습니다. 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 생각에는 19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누가 나타났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주요 공의회 의원이었고, 저는 유대인 산헤드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아는 일부 사실, 예수를 정죄한 공의회가 실제로 그 공의회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통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를 통해 내부 이야기를 대부분 접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묻기 위해 자신의 무덤을 준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에 나타나 예수를 묻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기 3장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면 19장 39절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반응, 두 경우 모두 예수께서 그들을 구약으로 데려가시는데, 나다니엘을 위한 야곱의 사다리든, 모세와 함께 보고 믿고 치유받고 보고 사는 종류의 일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번 다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 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21:08-32:50]

C: DE; 21:08-35:23; 우물가의 여인(요한복음 4장)

글쎄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떨까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우선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지배 계층에 속하고,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인인 반면, 니고데모는 내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매우 유대인적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외부인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와 어떻게 춤을 추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니고데모가 들어옵니다. 예수께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 갑작스럽게, 그의 얼굴에 바로 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교사인데,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니요,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해야 했어요. 지도자가 말하기 정말 어려운 것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압력을 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네가 이렇게 큰 인물이라는 걸 알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중 일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겸손해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네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제가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위축되었어요. 학생이 제가 답을 모를 질문을 할까봐 겁이 났어요 . 그리고 지금, 제가 수년간 가르쳐 온 것처럼,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저는 보통 그 자리에서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발이 빠르고 사물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는 사물을 만들어냅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알아두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제가 종종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좋고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입에서 먼저 하는 말이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일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창의적이고 사물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리더와 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며, 말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셨으므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성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야곱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여섯 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세부 사항을 끌어들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섯 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오쯤이고 바로 오후입니다. 그들은 아침 여섯 시에 해가 뜨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해가 뜨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섯 시에서 정오까지, 여섯 시가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녀에게 철학적인 질문이나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목마르고 피곤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나요?”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과 혼자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방금 “물을 마실 수 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니고데모의 경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매우 갑작스럽게 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갑작스럽게 대하는 것은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작은 주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에 매우 갑작스럽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것이 누구인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물었고 그는 당신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 “살아있는 물”은 유대인이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mayim hayim* 일 것이고, 여러분은 모두 유대인들이 건배를 할 때 *L'hayim* 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L'hayim*은 “생명을” 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mayim hayim* 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예수께서는 *mayim hayim* 살아있는 물 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녀는 물을 길러 우물로 가고 있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선생님,’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물을 길어올릴 도구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살아있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더 크신가요?’--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여기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가요? 그는 우리에게 우물을 주고 그 자신도 그 우물에서 마셨고, 그의 아들들도 마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또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양 떼와 그의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물샘이 되리라.” 요한이 어떻게 이 영생의 주제를 계속 언급하는지 보십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물을 주세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올 것입니다. 저는 여기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물을 길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물을 줄 수 있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최고일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그녀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미끼로 삼았습니다. ”이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좀 드릴까요?’” 여기가 그의 다음 질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사로잡으셨고, 그녀는 이 물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사실 당신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남자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선생님,’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은 선지자여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라고 한 다음, 그녀는 다시 그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 그를 휘방합니다.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 일종의 예언적 진술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너희가 모르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해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유대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고 지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 *메시아* 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 는 그리스어입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직접적이지 않은 이런 대답을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렇게 떠나십니다. 그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더 명확한 진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가장 분명한 선언 중 하나이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탐구자인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고 어딘가로 가서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는 그녀가 생각하고 숙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메시아이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진술입니다. 가야바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침묵 속에 맞은 예수는 그에게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자신을 하늘에서 오는 인자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진술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돌아왔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가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 왜 그녀와 이야기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물항아리를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러 오십시오.” 이 여인의 진술은 얼마나 놀라운가요. 마을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요? 그들은 마을로 나와서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마리아인들은 39절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 그리고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증거 때문에 그를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보내진 자가 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도가 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갑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마을로 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복음을 전했고, 그 내용은 “그 마을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증언으로 인해 그를 믿었습니다. ’ 그는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들은 그에게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권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머물렀고 그의 말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은 믿는 사람과 믿음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등장하는데, 대체로 여기 상황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큼니다.

#### **마.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서사 비교 [32:50-35:23]**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조금 비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3장과 4장에서 그들 사이에 이러한 텍스트 간 관계가 앞뒤로 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낮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매우 정중하게 “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돌아오시고 매우 갑작스럽습니다. 그는 “이봐, 거듭나거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에 그게 어디서 온 거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돌아오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냉담하게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정중하게 “물 한 모금 주시겠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매우 갑작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래, 당신은 저기 있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어떻게 물을 청할 수 있니?” 그래서 그 여인은 매우 갑작스럽게 돌아섭니다. 니고데모는 질문, 질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탐구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는 그 여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시겠어요?... 오, 당신은 다섯 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 여인에게 질문을 했고, 니고데모는 질문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에서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갑자기 끝납니다. 끝에서 니고데모의 반응조차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가 끝납니다.

니고데모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 알아보려면 19장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는 탐구자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마을과 그곳의 수가 마을로 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니고데모는 책의 끝에서 그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일어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이 심은 초기 씨앗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사이에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 사이에 이런 연극이 벌어지고 있고, 일종의 텍스트 간 연극이죠.

#### F. 인물 묘사: 간음한 여자 [35:23-41:34]

D: F를 함치다; 35:23-41:34; 간음한 여자(요 8장)

이제 다른 캐릭터에 대해 좀 더 빨리 다루고, 토마스에 대해 더 완벽하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간통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는 페리코페 , 여기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릿속에서 이걸 좀 꺼내보겠습니다. 이건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인데, 기본적으로 8장의 앞부분입니다. 간통한 여자에 대한 페리코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통한 여자를 데려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녀를 예수와 모세에게 데려가 율법에 이 여자는 간통한 여자로 잡혔으니 돌로 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로마인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 스스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가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로마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가 그녀가 돌로 맞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가 돌로 맞아야 한다고 말한 모세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그들은 그를 잡았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완전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남자들과 동거했던 여자들에게 쓰셨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땅에 쓰셨다고 말하는 온갖 것들을 쓰셨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예수께서는 “완전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글에서 “그들은 모두 떠나가고, 나이 많은 자부터 어린 자까지. 그들은 모두 떠나가고, 나이 많은 자부터 어린 자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노인은 삶과 지혜의 복잡성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돌을 집어 들고 그녀를 돌로 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통죄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걱정에 휩싸여 있고, 이 걱정은 진실을 옹호합니다. 노인은 “이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갈 수 있었을 거야.”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자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예수님과 그 여자의 상호작용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8장에 나와 있고, 저는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먼저 돌을 던지라.” 그는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만 그 여자와 함께 남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그들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였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아무도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가세요. 죄의 삶을 떠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기본적으로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간음한 여인의 페리코페와 8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줄이 바로 가로질러서 이 페리코페를 지우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 중 일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일부 사본에서 누가복음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떠다니는 페리코페나 누가복음으로 떠다니는 듯한 떠다니는 이야기와 같고, 결국 요한복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수도사입니다. 당신이 중세의 수도사이고 성경을 베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독신과 빈곤을 맹세했고, 그래서 독신을 맹세했고, 갑자기 간통한 여자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간통한 여자에게 돌아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잠깐만요, 저는 독신을 맹세했으니까, 갑자기 예수께서 간통한 여자에게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그녀가 간통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사들과 다른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넣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빼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NIV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넣고 그들이 말하는 대사를 넣는 건 우리의 가장 좋은 원고에는 없지만, 예수에 대한 합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통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가 떠돌아다녔죠. 다른 사본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데, 사실 누가복음 21 장이에요. 그러니까 간통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 변형이에요.

눈먼 사람,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고, 예수께서 진흙 파이를 가져다가 그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 성전 산에서 실로암 못까지 내려오셨습니다 . 아마 모든 것을 헤매며 내리막길을 반 마일 정도 걸었을 겁니다. 그는 눈이 멀어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 실로암 못에서 씻어내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기보다는, 여기에는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보고 예수께서 오셨고, 눈먼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이제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 보는 것과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사이에 이런 연극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9장은 눈먼 사람, 진흙투성이의 눈먼 사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 G. 캐릭터 묘사: 토마스 [41:34-50:30]

E: GH 결합; 41:34-57:46 **요한 복음의 토마스**

하지만 저는 다음으로 의심하는 사람인 도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캐릭터 묘사가 될 것입니다. 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도마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다음 단어는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저는 도마가 여기서 언급되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하는 마지막 구절 전에 두 구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살펴보고 그가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고 도마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14장이며 저는 거기에서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나를 신뢰하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이 있다.” 옛 킹 제임스 성경은 조금 더 나은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저택이 많이 있어, 우리는 하늘에 저택을 얻는다”고 잘 생각합니다. 맞죠, 하지만 사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으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면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안다.”

이제 문제가 뭐죠?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길을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호기심이 많았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는 도마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모든 경전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자매들이 기억나시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이런저런 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베다니에서 죽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올리브 산 뒤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리코에서 사막을  
 지나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다니가 있는 곳입니다. 능선을  
 넘어가면 불과 200야드, 3, 400야드입니다. 능선을 넘어가면 바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올리브 산에 올라가면 약 2,70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의 예루살렘은 약 300~400피트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드론  
 계곡으로 내려간 다음 성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올리브 산입니다. 올리브 산이 성전 산을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베다니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반 마일이나 일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셨을 때, 당신이  
 그곳에 계셨을 때,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너무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도마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도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랍비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당신은 다시 거기로 가고자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내가 거기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당신들이 믿게 하려고요.” [다시 믿음에 대한 강조] “내가 거기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당신들이 믿게 하려고요. 하지만 그에게로 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디디모[“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자. 아니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요한복음 11:16). 의심하는 도마, 이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 위로 올라가실 거야. 그는 우리 친구야. 혼자 올라가면 안 돼. 우리도 그와 함께 갈 거야. 그가 저 위에서 죽는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을 거야. 얘들아, 가서 예수와 함께 올라가자.” 이것은 용감한 도마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죽을 거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마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을 거야. 그가 가면, 우리도 갈 거야.” 이것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도마는 호기심이 많아요. 예수가 “우리는 길을 모른다”는 것을 알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거기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예수;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도마가 말했어요. “자, 얘들아, 가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야.” 그리고 이게 도마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마는 미주리에서 온 사람으로,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4절과 그 이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개념입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야 합니다. 저는 창이 낫힌 그의 옆구리에 제 손을 넣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 옆구리에 넣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믿음, 믿음, 믿음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도마,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손이 있습니다. 손자국이 여전히 내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의 표식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영원히 십자가의 표식이 남을 것인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분의 몸입니다. “도마, 손가락을 여기에 넣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래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용기 있고 호기심 많은 도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라에 대한 도마의 반응은 무엇이였을까요?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반응입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보다 더 나은 진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 H. 토마스에 대한 개인적 성찰 [50:30-57:46]

저는 토마스와 함께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5년 전쯤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채식암이 있었고 암이 그의 내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죽고 싶어서 병원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74, 75세였습니다. 저는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 마지막 11

일 동안 그와 함께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사들은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창문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상 예수님이 오늘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돌아오실지도 모르고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쓰러지실 때 제게 한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 같아요."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망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전환점이었고 암이 악화되면서, 정말 악화되었고, 정말 정말 추악해졌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모르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심을 얼마나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훌륭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모르핀을 주어야 했고 그것은 정말 심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모르핀을 줄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빠, 저는 의사지만 그런 종류의 의사는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아니요, 아니요, 테드가 저에게 모르핀을 줄 거예요." 그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모르핀 제공자였고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어느 날 밤에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말 힘든 11일이었고, 어떤 지점에서는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그 후 약 8개월 동안,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에 가서 모든 것이 끝나고 당신을 위해 끝나는 것과 같은 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24시간 내내 직접 손을 써야 했고, 제 자매와 어머니, 저는 마지막 날들에 24시간 내내 그를 돌봤습니다. 정말 심했습니다. 그가 묻힌 후 그곳을 떠나면 약 8개월 동안 매일 밤 한밤중에 깨어나 아버지의 죽음, 고통, 그런 것들을 꿈꿨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그의 죽음뿐이었고, 그가 죽는 것만 보였고, 약 8개월 동안 매일 밤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토마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가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을까요? 극도로 잔인한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막혀 죽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가 죽는 것을 보고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어서 제자들이 그에게 "토마스, 토마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나를 건드리지 마. 나를 건드리지 마. 그가 죽는 것을 봤어. 그가 죽는 것을 봤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은 하지 마. 예수는 죽었어. 그가 죽는 것을 봤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그에게 너무 깊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8개월 후, 8월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당신은 평생 성경을 가르쳐 온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매주 일요일에 “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를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8월 중순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네, 제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정말, 정말 추악했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예수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승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패배자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패배자입니다. 죽음은 집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부활을 정말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저는 부활로 나아갈 수 없었고 갑자기 부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부활이 있다고 믿은 첫 순간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죽음은 사라졌고 부활에 대한 희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마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무 집중해서 부활에 이를 수 없었을까 궁금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손가락을 넣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생각 방식을 바꿉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라고 말했고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보고 믿은 것이다. 나를 보고 믿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믿게 된 이유를 주목하세요. 믿음은 요한의 큰 주제입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믿은 것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러분은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 *아나스타시스*. 일어서세요, 그는 부활을 일어서셨고 우리는 내일을 축하합니다, 부활절과 인류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한 번 보았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의 부활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지 못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향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에 대해 한 분, 몇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Jessica Rabe가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